

경제

오는 18일 창립 60돌 보해양조

서민애환 함께 한 호남 대표 强小기업



보해양조(주)의 주력 제품인 인쇄주, 매취순, 복분자주 등을 생산하고 있는 보해 장성공장 전경. 장성을 영천리에 있는 이 공장에서는 연간 2억만병의 인쇄주를 양산하고 있다. /장성=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김삿갓’ ‘곰바우’ ‘인쇄주’ 등 30여종 생산
광주·전남 소주시장 82% 석권 ‘주류강자’
금융 등 5개 계열사 ... “새로운 60년 도전”

는 ‘주류강자’로 성장했고, 지역민들에게 친근한 향토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지난 1966년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생산하는 보해산업을 설립한 뒤 부도로 8년8개월 동안 법정관리를 받던 보해의 회생을 돕기 위해 기업살리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보해가 그동안 생산해온 30여종 소주는 애주가는 물론, ‘비주류’에 계도 추적으로 남아있다. 60년대 초반 생산된 ‘광화’, ‘광림’ 소주를 비롯해 ‘보해 골드’, ‘김삿갓’, ‘곰바우’, ‘천년의 아침’, ‘인쇄주’는 시대의 아픔과 삶의 애환을 달래주었던 서민의 술이었다.

보해의 성장에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밑거름이 됐다. 보해는 지난 1982년 ‘매취’를 본격 시판, 과실주 시장을 선도했다. 1990년대 초 장성공장 설립을 계기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사카린 소주를 판매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맞는다.

특히 지난해 출시 20주년을 맞은 복분자주는 ‘제1회 대한민국주류 품평회’ 대한민국 명품주 선정, ‘샌디에고 국제 와인 컨퍼런스’(San Diego International Wine Competition) 금메달 수상 등 굵직한 상을 받아 유명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복분자주는 지난 2005년에는 APEC 2005 정상회의 공식만찬주로 채택

되기도 했다.

보해는 제4회 경제정의기업상(음·식·식품 부문)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선정 2000년 생산성 대상(노사협력부문) 장관상 수상에 이어 광주·전남 경영자총협회 선정 제5회 노사협력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현재 장혜에탄을 비롯해 보해 B&F, 보해통상, 보해매인, 보해상호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재)보해대전장학회 설립, 윤영해고 있다고.

임건우 대표이사 회장은 “올해는 뜻깊은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지만 새로운 60년에 도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해는 오는 17일계 목포 대안동 본사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조촐하게 치를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소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온 보해양조(주)가 오는 18일로 창립 60주년을 맞는다.

보해의 역사는 창업자인 임광형(2002년 작고) 회장이 1950년 2월 18일 목포 대안동에 광림주조(보해양조 전신)를 설립해 청주를 생산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창립 후 60년 동안 보해는 광주·전남 소주 시장의 82%(2009년 매출액 2천165억원)를 석권하고 있

미소금융 지점 광주·목포 추가 개설

다음달 광주·전남 지역에 미소금융 지점 2곳이 추가 개설된다.

전남도는 “상생미소금융재단 전남 서부지점이 다음달 목포 재래시장에서 문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상생미소금융재단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융소

외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3천억원 이상을 무담보로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00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서부권을 포함한 미소금융재단 도내 지점 유지를 위해 지난 1월 상공인, 경제단체,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미소금융 유치계획을 수립

해 추진해 왔다.

우리미소금융재단도 3월 중 광주에 첫 지점을 내기로 하고 준비 작업 중이다. 재단은 초기 20~3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 저신용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현재 광주은행과 지점 개소 장소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께 구체적인 개점 계획의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Financial data box showing Kospi index (1,615.02), Kosdaq index (515.32), interest rate (4.27%), and exchange rate (1,149.00 won).

금호 정상화 발목잡는 FI

(재무적 투자자)

추가 손실 회복 방안 요구 등 ‘버티기’ 일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이 일부 재무적 투자자(FI)의 ‘버티기’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총 17개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 중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A사 등 2곳이 추가 손실 회복 방안 등을 요구하며 금호그룹의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8천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잔여 채권 중 일금은 무담보 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자 부분은

일금의 2분의 1 수준으로 각각 출자 전환하는 것이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러나 산업은행에 투자 원금과 이자를 일반 금융기관 채권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채권단에 금호산업이 보유 중인 대우건설 지분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대한통운 지분(24%)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출자전환 후 자신들이 최대주주가 될 금호산업에 대한통운 지분을 넘겨줘 기업 가치를 높여달라는 얘기다.

채권단은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

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방안들만 내놓으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모든 재무적 투자자들의 합의가 이뤄져야만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은 이번 주말까지 재무적 투자자들과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짓는 한편 금호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사채 출원 동의를 받아내 구조조정과 자금지원, 대우건설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노조 “회사측안 수용 불가”

‘휴 리더스 클럽’ 발대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노조가 3일 회사 측이 제시한 구조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고공격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워크아웃이라는 상황에서 현재의 임금수준과 단체협약을 유지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지만 회사측 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측이 회사안을 고수한다면 불가피하게 투쟁을 선택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채권단의 노조 동의서 요구에 대해 “실부른 결정보다 더 많은 의견과 여론을 듣고 나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측은 지난 1일 ▲적자 규격 생산 중단 ▲해고 371명과 도급액 1천6명 ▲임금 20% 삭감과 3년간 임금 및 정기 승급 동결 ▲유급일·연월차 휴가 축소 ▲복지후생 축소 또는 중단 등의 구조조정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석유화학(대표 김성태)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부 참여형 소비자 그룹 ‘휴(休) 리더스 클럽’ 1기 발대식을 했다.

‘휴 리더스 클럽’은 금호석유화학에서 만드는 친환경 프리미엄 견차 브랜드 ‘휴그린’의 주 고객인 주부들의 의견을 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소비자 프로슈머 그룹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농수산물 수출 급증

설 차례상 비용

221,468원

지난해 2억4천만달러 ... 18% 신장

주부교실 광주시지부 조사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광주·전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관로 개척에도 성과를 거두어 전세계 15개국에 수출되는 등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3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액은 2억4천200만달러로 2008년 2억400만달러에 비해 18.6%(3천8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농수산물 수출성장률 7%를 두배 웃도는 수치다. 광주·전남 지역 수출액은 국가 전체 수출액(48억달러)의 5.0%에 달한다. 품목별 수출액 비중은 쌀·전복·김 등 수산물(9천400만달러)이 가장 높

았으며, 과일·화훼류(3천만달러), 채소류(1천700만달러), 김치(400만달러) 순이었다. 수출 국가도 다변화됐다. 지난해 배가 인도네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시장에 납품된 데 이어 천일염도 중동 지역에 첫 수출했다. 김치는 네덜란드 시장에 신규 진입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농산물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모두 15개국으로 늘었다.

한편, 윤장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4일 오전 11시 나주시에 있는 (주)화인코리아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을 초청, ‘호남지역 농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설 차례상에 올라갈 성수품을 사는데 드는 평균비용은 22만1천468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12.9% 올랐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광주광역시지부(회장 박영희)는 지난 1~2일 광주시에 백화점(3), 할인매장(9), 대형슈퍼마켓(11), 재래시장(7) 등 총 30곳에서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필요한 22개 주요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3일 밝혔다. 연태백물 2만 백화점이 28만7천428원이고, 대형마트 22만4천931원, 슈퍼마켓 21만772원, 전통시장 16만2천742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민기기자 emlee@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hong Real Estate, featuring a model hotel and various propertie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angwu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on area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nwon Real Estate, highlighting a 270sqm property and other listings.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contact information.